

## ‘위브릿지 목회자 부부 위로의 밤’ 히즈 카페서 개최

카페지기 마원철 목사,  
 하나님 은혜 증거하며 감동 선사

‘위브릿지 목회자 부부 위로의 밤’ 행사가 히즈 카페(대표 마원철 목사)를 초청해 세계 선교교회(담임목사 김창섭)에서 4일(주일) 은혜와 감동 가운데 열렸다.

마원철 목사는 ‘시간에 기대어’, ‘마중’, ‘당신만 사랑하오’ 등의 대중 가요를 선사했고, ‘Moon River’, ‘Falling in love with you’ 같은 귀에 익숙한 팝송을 아름답게 선사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에는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등의 찬양으로 목회자 부부의 주를 향한 고백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노래했다.

참석자들은 익숙한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또 즐거워하며 이 시간을 즐겼다.

히즈 카페 대표이자 음향 전문가이기도 한 마원철 목사는 일년에 반 이상 개조한 RV를 몰고 미 전역을 다니며 중, 소형 교회 음향 세팅 및 수리를 섬기고 있다. 한국에서 음악과 IT계열을 전공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본성가대를 지휘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국 골든게이트대학에서 신학을 마친 그는 엘에이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인랜드 온누리교회와 팜스프링스 온누리교회에서 담임



마원철 목사 초청 위브릿지 목회자 부부 위로의 밤 ©기독일보

목사로 사역한 뒤 은퇴했다.

다음은 마원철 목사와의 짧은 인터뷰.

건강 상의 문제로 한 교회 목회를 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일찍 은퇴하고 차라리 허락해주신 은사를 갖고 여러 교회를 섬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엘에이,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역이 자꾸 알려지다 보니 한국에서도 집회 요청이 들어오고 타주에서도 초청하는 일들이 생겨 큰 교회 위주로 섬기게 됐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연약한 교회들, 숨어있는 교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에 5년 전에 RV구해서 그걸로 본격적으로 돌아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팬데믹으로 모두가 움츠러들었던 지난 2-3년간, 마원철 목사 부부는 오히려 사역의 지경을 넓혔다. 사역일정을 페이스북에 부지런히 올리는데, 정신없이 다닐 때는 몰랐는데 세어보니 작년에는 총 52개 교회를 다녔고, 재작년에는 68개 교회를 다녔다. 그렇게 6년을 다니면서 미 전역은 물론 캐나다 지역도 다녀왔다. 일년에 6개월 정도 시간을 정해 서부, 동부, 남부, 중부 등을 정해서 도는데 미리 사역 일정을 나누면 교단 관계자분들이 지역 내 소속 교회들에 연락해 일정을 잡고 기다리거나, 지역 내 교회들이 네트워크해서 뻗직한 일정을 짜서 요청해오

기도 한다.

보통 한 지역을 갈 때 요청이 들어온 교회의 예배 스타일과 교회 상태, 장비와 문제가 되는 부품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한다. 미리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품을 챙기기 위해서다. 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교회가 아니면 대부분의 중소교회는 음향에 많은 재정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 보니 가능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부품이 필요한 것은 도네이션 받거나 지역 내 다른 교회에서 남은 부품을 서로 나눈다고. 그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마원철 목사의 사역이다.

모든 수리와 음향 셋업은 무료로 봉사하지만 굳이 주는 사례를 거절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안 받으려고 애썼는데 요즘에 받는 이유는 오히려 나눠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감사하게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헌금을 받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시골 교회를 갈 때는 중간에 한국 마트에서 장을 잔뜩 봐서 갖다 드리면 또 그렇게 사모들이 좋아한다고. 그의 사역은 ‘통로’이기에 자연스럽게 재능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

음향 전문가로 열심히 섬기다가 때때로 ‘히즈 카페’ 카페지기로 변신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 넘어 커피 한잔이, 노래 한 곡이 복음을 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

김민선 기자

## 캘리포니아주 의사당서 ‘예수 조롱’ 드래그 단체 시상식 개최해 논란

지난달 메이저리그 LA다저스가 지역사회 영웅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성소수자(LGBT) 드래그 극단의 일원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5일 주의사당에서 시상하도록 초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종의 수녀회’(Sisters of Perpetual Indulgence, SPI)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주로 남성 게이들이 사제나 수녀의 옷을 입고, 보수적인 성관념과 기독교를 조롱하는 드래그 공연을 펼쳐 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주 스포츠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상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주의사당이 SPI 단원인 로마 수녀(Sister Roma)를 기릴 것”이라며 “증오와 학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들을 기리기 위해 그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다저스 구단은 이달 16일 홈경기에서 열릴 성소수자 행사에 이 단체를 초청해 지역사회 영웅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항의가 거세지자 다저스는 초청을 철회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

의원은 다저스가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게이 및 트랜스젠더 드래그 공연 단체에 상을 수여한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가톨릭연맹(Catholic League) 회장인 빌 도나휴도 이 단체를 “외설적인 반가톨릭 단체”라고 지목했다.

이 단체는 매년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드래그 쇼를 주최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헝키 예수’(Hunky Jesus) 행사에 참석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단체에 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주의사당 건물. ©Josh Hild/ Unsplash.com

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당시 이 행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달걀 찾기 게임과 여장을 한 게이 남성이 출연하는 다양한 드래그 쇼를 진행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440** (\$100불 할인예약증 \$34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환율변동)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 '각자의 전문성 바탕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 다하길'

### 제32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열려 102명 졸업생 배출

제32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학위수여식이 6월 3일 (토) 오후 1시 동양선교회(담임목사 김지훈)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47명, 석사 48명, 박사 7명 등 총 102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 중에 18명의 라틴 프로그램 학생들이 준학사와 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하루 전인 2일(금) 학교 채플실에서 열린 후식과 졸업생 및 가족들이 참석한 뱃팅에 이어, 이날 뜻 깊은 학위수여식을 맞이한 졸업생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학위수여식은 교수단과 졸업생 입장에 이

어 개회선언과 유강수 교수의 기도, 신선목 부총장의 학사보고를 거쳐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학위수여 순서를 가졌다. 이어 임성진 총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학업을 무사히 마친 졸업생들을 치하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당부하였다.

졸업생 답사와 헌신의 기도 그리고 교가제창 후에 송정명 전 총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사회는 신선목 부총장과 최윤정 교수가, 스페니쉬 통역에는 이준성 교수가 각각 맡았다.

김민선 기자



제32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 은혜와평강교회 창립 39주년 창립감사예배 드려



은혜와평강교회 창립 39주년 창립감사예배

은혜와평강교회(담임 곽덕근 목사)가 지난 4일 창립 39주년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KAPC 총회가 주최한 제 1회 성경필사 대회에 참여해 이봉철장로와 10여명이 장려상과 완필상 특별상등 여러상을 휩쓸었다. 곽덕근 담임목사도 성경필사대회 소감

문을 제출해 총회에서 상패를 받았다. 금년부터 교회성도들은 매일 감사를 묵상하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교회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불평이 사라지고 매일 매일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있다.

곽덕근 목사는 "지난 팬데믹의 어려운 순간에도 교회에 은혜를 주셨고 구제와 봉사 선교를 끊임없이 감당하게 하셨다"며 "40주년을 앞둔 은혜와 평강의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창립감사예배에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곽덕근 목사는 "주님의 교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다. 그러기에 눈동자 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지난 39주년 은혜와 평강교회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자"고 말했다.

곽 목사는 또 "사도바울의 에베소교회를 향한 편지에서처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단의 거짓 복음의 공격과 세상 나라가 진리를 왜곡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주님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예배 후에 교회 39주년 생일케익 커팅식과 함께 감사 축제의 친교 시간이 이어졌다.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은혜와평강교회는 교회 40년사 편찬사업과 역대 담임 목회자와 후원 선교사를 초청해 흠뻑민미에 행사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 남가주예수사랑교회 창립 10년 맞아 임직자 세위

남가주예수사랑교회(담임 오상규 목사) 창립1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지난 주일(4일) 오후 3시에 분당에서 열렸다.

오상규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또 다른 10년을 출발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남가주예수사랑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감사예배는 오상규 목사의 인도로 신광섭 목사(성림교회 원로)가 대표기도하고 예수 사랑 중창팀의 특별찬양 후에 정장수 목사(올림픽 장로교회 원로)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창조의 원리는 희생의 원리이다.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좋은교회는 리더의



남가주예수사랑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희생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희생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생명을 낳기 위해 희생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신실한 일군이 되라"고 권면했다.

이어진 임직식은 오상규 목사의 인도로 서약과 축복기도 후에 김정명 명예장로와 이인순 권사의 임직이 선포됐다. 임직패 수여와 꽃다발 증정식 등 축하 후에 문상면 목사(CRC 한미노회서기,생명샘교회 담임목사)의 권면과 이인규 목사(기독교일보 사장)의 축사, 박철현 선교사(말레이시아와, 전용택선교사(차드)의 축사 영상, 장상근 전도사(바리톤)의 특송이 이어졌다. 예배는 정장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됐다.

남가주예수사랑교회는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90247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배시간은 주일예배 오전 10시, 새벽예배 오전 6시(월~금), 금요일성경탐구 오후 7시 30분에 드리고 있다. 문의는 213)500-2288로 하면 된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제43회 학위수여식 가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는 지난 3일 오전 10시 홀리톤 장로교회 제43회 졸업감사예배와 학위수여식을 갖고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요한 목사(학생인재개발처장)의 사회로 시작한 1부 졸업감사예배는 김은철 목사(다민족 사역 디렉터)의 기도, 신춘식 목사(선교학과 박사원 어드바이저)의 성경봉독, M.Div(교역학 석사)에 재학 중인 김보름 전도사의 특송 후에 전 KPCA 총회장인 박상근 목사(새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 담임)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상근 목사는 설교를 통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사역자들이 되길 졸업생들에게 당부하였다.

황인철 목사(홀리톤장로교회)의 축도로 졸업감사예배를 마친 후 이어진 학위수여식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43회 졸업감사예배와 학위수여식

고종필 학부교무처장의 사회로 김루빈 그랜트 및 발전처장의 학사보고가 있는 후, 학위수여식에 들어가 선교학 박사원(Ph.D.C.S.) 7명, 선교학석사과정(MAICS) 9명, 상담심리

학석사(MACP) 12명, 교역학 석사(M.Div.) 16명, 신학 학사(B.A.Th. 6명 등 총 5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총회장은 이용권(MAICS)과 이

명희(MACP)씨가 수상했으며, 이사장상은 김창주(M.Div), 이강목(MAICS), 이상무(MAICS)씨등 3명이 수상했다. 총장상은 최경(MACP), 이신디(M.Div), 한정희(B.A.Th.), 정우영(B.A.Th.) 4명, 동문회장상은 노명희(B.A.Th)와 윤우주(B.A.Th.)씨 등의 2명이 수상했다.

미주장신 총장 이상명 박사는 격려사를 통해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길 당부했다.

졸업생들을 대표해 이상무(MAICS) 씨가 인사를 했으며, 다함께 교가를 제창함으로 졸업식을 마쳤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15605 Carmel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에 위치하고 있으며 562.926.102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GMU 상담심리학 철학박사 과정 TRACS 인가 받아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 철학박사 과정 TRACS(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취득 인가 기자회견

미 서부 남가주 풀러턴에 위치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가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TRACS)로부터 상담심리학 철학박사(Ph.D. in CP)인가를 취득했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6월 1일(목) 오전 11시 GMU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현완 교무 학장의 기도로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최규남 총장, 김현완 교무 학장, 이병구 학생학장, 안송주 교무 학장이 참여해 상담심리학 철학박사 학위 과정 소개 및 인가 취득에 대한 소감과 비전을 발표했다.

최규남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15일 GMU는 TRACS로부터 상담심리학 철학박사(PhD in CP) 인가를 취득 받았다"라며 "28000여명의 한인선교사시대를 맞아 타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멤버 케어를 위한 노력은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이 해야 한다"고

상담심리학 철학박사 학위의 목적을 말했다.

GMU 박사 원장이 이병구 박사는 "한인 선교사들의 건강한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철저한 학사관리와 수준 있는 강의로 GMU 박사원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MU PhD in CP프로그램은 선교사 디프링 전문가이자 상담심리학 철학박사이신 유희주 학장과 코칭 전문가인 조성철 교수가 맡아 강의를 진행하게 되며 상담이론과 디프링, 코칭과 임상수업, 연구 방법론과 심리학 이론 등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된다.

졸업학점은 52학점 8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가을 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해 본격적인 PhD in CP과정이 시작된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송주 학장은 GMU가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NIC) 프로젝트를 위해 올해 Lilly 재단으로부터 125만불의 연구 지원금 승인을 받아 2023년

부터 2026년까지 미국 내 다양한 한인 이민 교회들과 협력하여 학술적이면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GMU의 비전을 밝혔다

GMU는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TRACS), 그리고성경고등교육협의회(ABHE), 대학교육인가심의회(CHEA), 가주교육국(BPPE)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학교이다.

GMU는 현재 2023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

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학(BAth)와 기독교 상담학(BACC)의 학사과정과 목회학(MDiv), 기독교 교육학(MACE), 선교학(MAICS), 기독교 상담학(MACC)의 석사과정, 그리고 선교학(DMiss), 교차문화학철학(PhD in ICS), 교육학철학(PhD in ES), 상담심리철학(PhD in CP)의 박사과정까지 10개의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100% 온라인 수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 혜택도 주어진다.

문의: (714)525-0088

## 나성순복음교회, 젊은 부부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이미 한국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미주 한인 청년들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다. 이에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가 젊은 부부의 자녀 출산과 육아를 격려하고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교회는 교인 가운데 첫째 자녀 출산 시 1천 달러, 둘째 출산 시 2천 달러, 셋째 출산 시 3천 달러, 넷째 출산 시 5천 달러를 지원하며, 다섯째부터는 교회에서 더욱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 장려금이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교회 측에서는 담임목사가 집례하는 헌아식 때 온 교인이 기도하고 축복하며 장려금을 전달한다.



나성순복음교회 교인들이 헌아식 때, 출산 장려금을 전달하며 축복하는 모습

진유철 담임목사는 "출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축복이다. 젊은 부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격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미주복음방송 시니어 임파워링 세미나 성료

미주복음방송(이영선 사장) 주최로 열린 샬롬 김 박사의 '시니어 임파워링 세미나'가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 까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 성황리에 마쳤다. 70여명의 참석자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을 가득 메웠고 이 자리에는 남가주 교계의 담임목회자들 뿐 아니라 시니어 사역을 섬기는 부교역자와, 평신도 리더, 은퇴 사역자와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소속의 참석자들이 함께 했다.

미주복음방송 강일하 부사장의 사회와 개회기도로 시작한 세미나의 1부는 시니어는 어떤 시기이며 어떻게 가치있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과 함께 감사이자 저자인 샬롬 김 박사의 '생명의 서'의 출판 동기와 시니어 시기에 본 책을 읽고 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한 소개로 문을 열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생명의 서'의 각 과를 하나씩 살펴보고, 개인과 교회가 그 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순서 가운데 '생명의 서' 이수자들의 간증과 특송을 통해 삶과 신앙을 나누는 시간으로 깊은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 순서인 '저자와의 만남' 시간에서

는 이례적으로 참석자 전원이 세미나에 대해 피드백을 전하는 소감 릴레이가 이어지며, 이민교회와 이민성도들이 고령화 시대 속 시니어 사역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함께 느끼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 됐다. 참석자 중 선한목자교회 of ECO 고태형 목사는 "시니어 사역에 있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고 교회 사역에 접목될 수 있도록 책 전체의 내용을 리뷰한 방식이 유익했다"고 전했고, 나침반교회 민경엽 목사는 "시니어가 몰려온다는 위기감을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중에 시니어 사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볼 수 있어서 있어서 좋았고 시니어들의 눈높이와 형편에 맞게 어떻게 교육하고 인도하면 좋을지 다양한 방법론을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시니어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다', '선교지의 시니어들에게도 '생명의 서'를 통한 인생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다' 등 다양한 감사의 피드백들이 쏟아졌다.

또한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작년부터 시니어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오며 <



2023 시니어 임파워링 세미나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 시즌 1, 2를 제작했는데 그 내용들이 단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역에 사용될 수 있는 툴을 드리기 위해 이번 시니어 세미나를 준비했다. 시니어들을 재교육하고 다시 일으킴으로써 점점 사라져가는 진짜 다음세대들에게 영적,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전수하고 그들에게 롤모델이되는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샬롬 김 박사의 '생명의 서'는 인생과 신앙을 회고하며 7가지의 주제에 맞게 스스로

기록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신만의 '특별한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구성된 시니어들을 위한 전문 교재이다. 시니어를 위한 '생명의 서' 세미나는 추후 지도자반 양육을 위해 12명의 소그룹을 4회에 걸쳐 비전멘토링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전 과정 유료 시 지도자 수료증을 수여한다. 교회 초청 세미나도 신청 가능하며, 책과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비전멘토링인터내셔널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갈보리선교교회로 옮겨 조찬기도회

## 8월 선교사자녀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전력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지난 3일(토)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417차, 2023년 6월 월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기도회 말씀 강사는 미라클포인트교회 담임이며 OC교협 부회장 박재만 목사가 나섰다. 박재만 목사는 "무엇으로 사십니까?(빌 1:18-21)를 제목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길 때 문제는 어느새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며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과 맡기는 삶을 강조했다.

기도회는 신용 회장의 사회와 이소연 이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박재만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연합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터키 지진 피해자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 OC 지역사회와 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에 이어 연합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합심기도 마무리기도는 엄재선 이사가 맡았고, 박재만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는 회원 교회소식과 OC 교계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월례조찬기도회

식을 전했다. 연합회는 8월 7일(월) 제4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토너먼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골프 참여자와 광고후원, 물품으로 후원에 참여할 이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11월 4일(토) 교회연합성가제 장소를 에너하임에 있는 수정교회로 추진하던 중, 다수 목사들이 우려를 보내와 장소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C교계 소식으로는 6/14(수) 캘리포니아신학대 후원 골프토너먼트, 7/29(월)~8/23(수) 3050 영적대각성 특별세벽기도회, 8/24(목) 3050 목회자 세미나, 9/3(주일) 사모블레싱 등이 계획되고 있다고 전하

고, 영적대각성 특별세벽기도회와 목회자 세미나에 개척교회를 담임하거나 작은 교회 3050세대 목회자를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기도회는 그동안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에반겔리아대학교 체펠실에서 갈보리선교교회로 옮긴 첫 조찬기도회였다. 장소사용 때문에 아침 8시에 드린 던 예배도 30분 앞당겨 7:30에 드린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설령탕으로 조찬을 함께한 연합회 회원과 이사들은 보다 안정된 장소로 이전한 것 같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연합회는 약 2개월 남은 골프대회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골프대회 참여자와 광고후원, 물품후원에 많은 교회와 단체, 기독교실업인들이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3회에 걸쳐 58,500불을 115명의 해외 선교사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목표는 30,000불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께 희망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 골프대회 참가 및 광고, 후원문의는 총괄준비위원장 민김(213-700-7877)에게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정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긋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 조이스 리, M.D.

## 진료과목

###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박사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23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미 서부 남가주 풀러턴에 위치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가 지난 5일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2023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김현완 교무학장의 사회로 시작한 본식은 안송주 교무학장의 기도와 제임스 조 교수의 성경봉독 후에 최규남 총장이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규남 총장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12 제자의 참된 제자를 만드신 것처럼 어둡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참된 제자와 크리스천을 양육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권면에서는 PCIGA 박병섭 총회장이 축사는 한기홍 이사장이, 격려사는 김영환 동문회장과 이병구 학생학장이 맡았으며, 동문 김정호 강도사는 특송(주 은혜가 나에

게 족하네)으로, 이승준 학생회장은 축하메시지로 졸업생들의 가는 길을 축복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신학학사(BA) 10명, 기독교 상담학사(BACC) 1명, 목회학석사(MDiv) 11명, 기독교 교육학석사(MACE) 6명, 기독교 상담학석사(MACC) 8명, 선교학박사(DMiss) 1명, 교차문화철학박사(PhD in ICS) 1명 총 3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사장상은 양주옥(MACC)학우가 총장상은 정정란(BA)학우가 총회장상은 공선화(MACE)학우가 수상했으며, 이 밖의 최위란(BA), 김영민(M.Div), 성은경(MACE)학우에게는 공로 및 감사패가 증정되었고, 최규남 총장의 축도로 졸업식을 마쳤다.

GMU는 현재 2023년 가을학기 신,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학(BA)와 기독교 상담학(BACC)의 학사과정과 목회학(MDiv), 기독교 교육학(MACE), 선교학(MAICS), 기독교 상담학(MACC)의 석사과정, 그리고 선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23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가져

교학(DMiss), 교차문화철학(PhD in ICS), 교육학철학(PhD in ES), 상담심리철학(PhD in CP)의 박사과정까지 10개의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100% 온라인 수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 혜택도 주어진다.

## GIFT 상담치유연구원, MBTI 대화 기술 세미나 개최

GIFT 상담치유연구원이 지난 3일(토) '성격과 성격이 만나는 MBTI 대화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4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대해 배우고, 나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기술, 자기 이해와 타인과의 소통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세미나는 이론과 실습을 통한 체험적인 학습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 성향, 대화 방식, 의사결정 방식, 갈등 관리 스타일 등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대화법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주최 측은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관계와 소통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GIFT 상담치유연구원 세미나

사랑의 대화 기술과 MBTI 대화 기술은 일상 생활에서의 대화와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참가자들은 "사랑도 과학이다"를 배우면서 사랑과 대화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보다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 센터메디컬그룹 정준 주치의 5차 건강 세미나

센터메디컬그룹이 주최하는 '주치의 건강 세미나'가 6월에도 성공적으로 마쳐졌다.

센터메디컬그룹의 젊은 주치의 정준 박사(내과)는 6일 LA 한인타운의 사우스 맨하튼 시니어 아파트 커뮤니티룸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선 시니어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소상히 풀어줬다.

참석한 85명 시니어들은 고급 쟁반 등을 담은 구디백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받았다.

주최측은 "이번 주치의 건강 세미나는 올해 5번째 행사로 시니어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 내년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참가자 최종 509명 추천돼

### 준비위, 30일 소식지 통해 밝혀... 한국로잔, KWMA와 MOU

내년 9월 한국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한국 참가자들은 최종 509명이 추천되었고, 등록을 위한 안내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유기성 목사, 이하 준비위)가 30일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나온 제4차 로잔대회 소식지에서 이 같이 전하며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확장된 다양한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스터디 그룹, 전문인 그룹, 분야별 모임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단법인 한국로잔(이사장 이재훈 목사)은 이날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이사장 이규현 목사)와 업무협약(MOU)식을 진행했다.



최근 열린 제4차 로잔대회 설명회에서 한국로잔 이사장인 이재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한국준비위

준비위는 "로잔대회는 현대 선교전략적인 면에서도 한국 선교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KWMA가 제4차 로잔대회 준비와 운영에서 한국선교계의 전략적 연대의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준비위는 지난 16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교단 지도자 초청 제4차 로잔대회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10여 개 교단에서 약 20명의 총회장 및 총무 등이 참석했다.

준비위 총무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의 환영 인사 및 참석자 소개로 시작된 모임에서, 이재훈 목사(제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가 제4차 로잔대회의 의미를 소개했고, 이어 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가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교회의 회복에 있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재훈 목사는 로잔운동은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으로서, 특별한 조직이 구성되어 이

끄는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헌신해 온 참여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복음주의 운동임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이번 대회는 국제 로잔분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과거 대회와는 달리 한국교회가 아시아 교회들과 협력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유기성 목사는 "국제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제4차 로잔대회가 잘 치러지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 잔치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홍주 목사(준비위 실행총무)가 준비 상황 브리핑을 통해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사항들을 소개했고, 박영호 목사(포항제일교회)는 "한국교회가 함께 사도행전을 설교하며 로잔대회를 준비해 가지"고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 계속... 북한인권박물관 건립해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지성호 의원, 2일 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촉구

건립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건립을 추진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당시 '북한인권박물관 설치·운영 추진계획' 연구용역까지 마쳤던 통일부는 이듬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돌연 시급성과 시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사실상 금기시하며 감추기에 급

급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제2차 북한인권박물관 연구용역까지 마쳤지만,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에 부쳐 국회에마저 제출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감추려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북한인권실태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증언하며 이미 많이 알려졌다.

지 의원은 "국제사회의 보고서와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북한인권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는 고문과 아사 등으로 사망

한 사체를 태우는 연기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이 한층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촉구했다.

탈북민인 지성호 의원은 지난 2006년 한 팔과 한쪽 다리를 가지고 중국, 라오스, 태국 등 1만 km를 돌아 대한민국에 정착해 북한인권개선활동을 한 대표적인 북한인권 전문가다.

김진영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박물관

# 캘리포니아 대형교회, 105년 역사 복음주의 교회와 통합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형교회인 데스티니 크리스천교회(Destiny Christian Church)가 새크라멘토의 캐피털크리스천센터(Capital Christian Center)와 통합하기로 했다. 두 교회 모두 하나님의성회 교단 소속이다.

복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교회 중 하나이며 현지에서 가장 큰 기독교 학교를 세운 새크라멘토크리스천센터는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데스티니크리스천교회의 그렉 페어링턴 목사와 캐피털크리스천센터의 릭 콜 목사는 공동 서한을 통해 “두 교회의 이사회는 캐피털크리스천센터가 데스티니교회의 가족으로 합류하는 것을 진행하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서한은 “캐피털크리스천센터는 지난 몇 년 동안 재무 기반이 불안정해졌다”며 “데스티니와 협력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력 아래 단합하는 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



데스티니크리스천교회 그렉 페어링턴 목사. ©데스티니크리스천교회

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정 및 영적 힘을 제공한다”고 했다.

페어링턴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두 교회의 승인 투표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로 캐피털크리스천센터가 본질적

으로 데스티니크리스천교회의 첫번째 워싱턴 캠퍼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캐피털크리스천센터는 우리 지역의 주요 목소리 중 하나로서 10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내의 가족이 70년 이상 동안

속해 있는 교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록클링에서 사역을 시작한 1989년 데스티니교회 초기에 캐피털크리스천센터와 작고한 글렌 폴 목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페어링턴 목사는 “캐피털크리스천센터는 새크라멘토에서 힘있는 교회였으며, (글렌 폴 목사는) 우리를 교회에 소개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참석하도록 초대했다. 그는 34년 전 우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며 “그는 나의 멘토이자 영웅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34년이 지난 지금, 아내와 내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 이 교회의 편에 서서 돕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양측의 이 협력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법적 및 기술적 실행 과정이 필요하지만, 페어링턴 목사는 두 교회가 올 여름 승인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혜진 기자

## 릭 워렌 목사 “남침례회, 전례없는 쇠퇴... 대안은 ‘여성 사역’

### 부인 혹은 침묵하는 태도에 ‘부정적’ 지적



새들백교회 전 담임목사인 릭 워렌 목사. ©SBC 스탠드 영상 캡처

‘목적이 이끄는 삶’ 저자이자 새들백교회 전 담임인 릭 워렌(Rick Warren) 목사가 “남침례회 교인 수가 수 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며 “교단이 이러한 추세에 더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워렌 목사는 최근 ‘갈림길에 선 SBC’(SBC at the Crossroads)라는 제목의 4부작 영상을 통해 남침례회(SBC) 교단의 ‘전례없는 쇠퇴’를 언급했다.

그는 “교단 지도자들은 교인 수 감소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며 “SBC는 위기에 처해 있다. 17년 동안 300만 명의 교인을 잃었다. 이것은 결함이나 코로나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한동안 그려 온 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교단 지도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부정적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렌 목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고 교단을 부흥시키기 위한 많은 권고를 했다. 그 중 하나가 ‘여성 사역에 대한 신약의 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그가 설립한 새들백교회는 여성 목사 안수의 문제로 SBC와 교류가 단절됐다. 현재 새들백교회는 이에 대해 항

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워렌 목사는 오는 6월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다음 총회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워렌 목사는 “교단에 대한 나의 뿌리는 깊다. 양가에 모두 4대째 SBC 목사가 있다. 그들은 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대학과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도와 줬고, 사역적으로도 지원해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SBC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워렌 목사는 이달 초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 찰스 H. 스피얼이 설립한 영국 최대 복음주의 대학인 스피얼칼리지의 초대 명예 총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 美 60% “학부모 동의 없는 ‘성 정체성 상담’ 반대”

### 라스무센리포트, 성인 1,116명 대상 여론조사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학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일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리포트(Rasmussen Reports)는 미국 성인 1,1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LGBT 이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학교 관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들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해 상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해도 된다고 답한 이들은 26%, 모르겠다는 이들은 14%였다.

정당별로 살펴 보면 공화당(75%)과 무소속이라 밝힌 이들의 대다수(64%)가 반대했다. 민주당의 44%도 이에 반대했다. 또 남성(55%)보다 여성(65%)의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또 미국인의 과반수(62%)는 유방 절제술 및 거세와 같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신체 절단 수술을 금지하는 주법에 찬성했으며, 거의 절반(46%)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반면 응답자의 약 30%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지지한다고, 이 가운데 18%는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청소년 성전환 수술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로 현재 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등 19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자체 또는 일부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당)는 최근 소위 성전환 수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 사진을 공유했다. 이 사진에는 성전환을 원하는 소녀들을 위해 팔뚝 조직을 제거한 후 남은 기형과 흉터가 담겨 있었다. 또 남성이 되고 싶어하는 생물학적 여성이 건강한 유방을 제거한 모습도 있다.

아울러 라스무센리포트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동의했고, 23%만이 다양한 성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공화당(72%)의 대다수와 무소속(54%) 과반수가 강력히 동의했으며, 대다수 흑인(64%), 기타 소수자(57%) 및 백인(55%)도 과반이 이에 동의했다.

강혜진 기자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 국내이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외의뢰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대를 섬김이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ken 고대)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치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기쁨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돋이요 내 밭에 빛이네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n.com

### ‘예수 운동’ 50주년 기념 4천여 명 침례

####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오순절 주일인 지난 5월 28일,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인 ‘예수 운동’ 50주년을 기념해 4,000명 이상이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침례를 받았다.

CBN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오션교회(Oceans Church)는 60년대와 70년대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 이끈 영적 각성일을 기념해 침례식 ‘뱃타이즈 소칼’(Baptize SoCal)을 마련했다.

280개 이상의 교회에서 온 8,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은 4,166명이 파이리츠 코브(Pirates Cove) 해안에서 침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침례였다.

웨스트코스트생명교회(West Coast Life Church) 레이 진 윌슨(Ray Gene Wilson) 목사는 “정말 놀랍고 역사적인 날”이라며 “파이리츠 코브에서 수천 명이 침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감격해 했다.

한 참석자는 인스타그램에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예배 인도자 린디 코퍼(Lindy Cofer)는 “교회는 살아 있다! 어제 침례식은



줄을 서서 침례를 받고 있는 참석자들. ©오션교회 인스타그램

캘리포니아의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예수 운동이 50주년을 맞았다”고 했다.

영상작가 에디 퍼거슨(Eddy Ferguson)은 “많은 이들이 한 사람의 침례 장면을 목격하는 것도 정말 축복이었지만, 히피들이 50년 전 예수 운동을 통해 침례를 받았던 곳과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초현실적이었다”고 했다.

예수 운동과 파이리츠 코브에서의 침례는 영화 ‘예수 혁명’에도 등장한다. 이 영화는 지난 2월 극장 개봉 이후 흥행에 성공했으며, 4월 DVD와 블루레이 판매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강혜진 기자

### LA다저스, LGBT 행사 논란... 기독교인 커쇼 “반대”



FCA 출신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 선수. ©CGTV ‘인플루언스’

메이저리그의 LA다저스(LA Dodgers)가 6월 성소수자의 달(LGBTQ Pride Month)을 앞두고 관련 행사를 준비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다저스 구단은 오는 6월 16일 홈경기에서 성소수자 행사를 열고 ‘LA 방종의 수녀회’(Sisters of Perpetual Indulgence)’를 초청해 지역사회 영웅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사제·수녀 등의 복장을 즐기는 성소수자의 모임으로, 매년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행사를 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LA 가톨릭 교구가 즉각 반발했고,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까지 나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다저스는 이 단체 초청을 철회했다.

그러자 성소수자 권익 단체와 민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고, 다저스 구단은 5월 22일 사과 성명을 발표한 뒤 초청 철회 결정을 반복했다.

그러자 LA 가톨릭 교구는 즉각 성명을 통해 “가톨릭 신앙을 명백히 조롱하고 수녀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단체를 기념하는 행위에 우리는 실망, 우려, 분노의 감정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다저스 투수 클레이튼 커쇼(Clayton Kershaw)도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성소수자 행사에 ‘방종의 수녀회’를 초청하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쇼는 “이번 사태는 ‘기독교 신앙의 날’이라는 또 다른 날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재촉한다”며 “올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었는데, 그 발표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다. 이는 방종의 수녀회를 강조한 데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조롱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방종의 수녀회가 종교

적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은 비판하거나 유사한 성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는 바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느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날’을 기념하기로 한 것은 최선의 결정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커쇼는 예배 인도자 션 포이트(Sean Feucht)를 통해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 다저스의 동료 투수 블레이크 트레이넨(Blake Treinen)과 합류했다.

포이트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레이넨이 서명한 편지를 공유하며 “내 친구이자 메이저리그 투수인 블레이크 트레이넨이 트위터에 이 성명을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트레이넨은 성명에서 “야구를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이해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항상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종의 수녀회를 기념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권리를 박탈하고 기독교인과 신앙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단체는 매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부활절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다저스, 메이저리그 야구, 프로스포츠 팬과 지지자들을 소외시킨다.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가치와 경쟁 때문에 야구를 좋아한다. 팬들은 강요된 선전이나 정치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이 단체는 내 신앙의 기반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조롱한다”고 했다.

이어 “다저스는 가톨릭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증오와 조롱만을 보여주는 ‘신성모독적’인 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버드라이트’와 ‘타겟’의 파멸은 기업과 프로스포츠에 ‘브랜드에 충실하고 선전과 정치의 현장에서 떠나라’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서 오순절 집회 개최**



"2023 오순절-예루살렘과 열방을 위한 세계 기도의 날" 행사가 27일부터 28일까지 예루살렘에서 열렸다. ©https://www.pentecost2023.org

**일부 유대인들,  
폭력적 반대 시위 벌이다 체포돼**

예루살렘 통곡의 벽(Western Wall) 근처에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한 복음주의 기도 모임이 열린 가운데, 일부 우익 유대인 활동가들이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다 체포되는 등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23 오순절-예루살렘과 열방을 위한 세계 기도의 날" 행사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통곡의 벽 근처 고고학 공원인 데이비슨 센터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주최측은 예루살렘 성전산의 남쪽 계단에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시편 122편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지 매체인 하레츠는 "행사 기간 저명한 랍비와 예루살렘 부시장을 포함한 여러 유대인 활동가들이 시위에 나선 가운데, 그 일부가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고 일부는 침까지 벌이며 결국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하레츠는 "시위 도중 데이비슨 센터의 유리창이 박살이 났다"며 "시위자 10명이 체포됐지만, 그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투데이(Israel Today)는 "시위자들이 들고 있던 일부 피켓에는 서기 70년 로마에 의한 제2성전 파괴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시위의 이유로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시위자는 "우리는 홀로코스트에서 살해된 600만 명과 유혈 참사를 잊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 곧 건축될 성전의 남은 부분에서 기도한다. 유대 민족의 감정을 존중하고, 여기가 아닌 교회에서 기독교 의식을 행하라"고 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우익 노암당(Noam Party)의 정신적 지도자인 초정통과 랍비 지이 타우(Zvi Thau)와 기독교 선교 활동을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즘과 동일시한 예루살렘 부시장 아리에 킹(Arieh King)도 있었다.

킹은 트위터에서 "위엄 있고 적절한 시위에 박수를 보낸다"며 "내가 아는 한 모든 선교사는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킹은 "주일 시위 참가자 중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인 3명을 만났다"며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생중계된 기도 및 예배 행사 참가자들을 "기독교 컬트의 일부"라고 했다.

주로 아랍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기독교 공동체는 2021년부터 정통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돼 왔으며,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유대인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해제된 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이 축제 기간 동안 70개국에서 온 2천 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혜진 기자

**북한, 성경 소지한 부모의 2세 자녀에  
종신형 선고**

**미 국무부, 2022년  
종교자유 보고서 발표**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성경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원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이달 발표한 '2022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는 약 7만명의 기독교인이 북한에 수감되어 있고, 그곳에서 수감자들이 가혹한 환경과 신체적 학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록된 인권 침해 사례의 90%가 "북한 국가안전정보위원회가 기독교인과 사메니즘 신봉자에 대해 저지른 만행"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시민단체 '미래한국'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종교 물품 소지, 또는 종교인과 교제하는 개인에 대해 체포 및 구금에서부터 고문, 강제 노동, 추방 및 생명권 박탈에 이르는 박해를 자행한다고 전했다.

미래한국이 151명의 북한 기독교인 여성을 인터뷰한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노동, 성폭력, 자의적 구금, 고문 및 추방이 가장 흔한 박해의 형태이다. 또 탈북자들은 북한의 교과서가 반종교적이며, 과거 기독교 선교사들을 강간, 장기 착출, 살인 등의 악행을 저지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사메니즘을 믿는 주민들마저 강제노동 수용소나 재교육 시설에 6

개월에서 수년 동안 구금한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보고서에서 "(관리들이)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 나는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물론 마셔도 계속 설사를 했고 몸무게는 겨우 35kg에 불과했다"고 했다. 다른 제보자들도 시실 내부의 구타, 오염된 음식 섭취, 장시간 불편한 자세 강요, 폭언 등에 대해 진술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독교인들의 경우 15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가장 혹독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신앙 관습과 성경 소지를 이유로 체포된 일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감되었고, 2살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미국 정부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즉결 처형을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1년 보고서 '조직적 박해 - 북한의 종교적 자유 침해 기록'에서 2020년 문서화된 위반 행위가 북한이 "기독교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모든 기독교 신자와 기관을 말살하려는 운동은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이었다"며 "국가안전정보위의 활동, 중국으로 확장된 정보원 네트워크, 출구 없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처형, 학교, 직장 및 이웃을 통한 억제 교육 및 체계를 통해 계속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b>오명찬 담임목사</b> 
<b>웨스트힐장로교회</b>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9314 Resid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OC재동 성경공부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8:00(주일)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b>최혁 담임목사</b> 
<b>주안에교회</b>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b>곽덕근 담임목사</b> 
<b>은혜와평강교회</b>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b>국윤권 담임목사</b> 
<b>충현선교교회</b>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지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b>신태섭 담임목사</b> 
<b>가디나장로교회</b>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 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EM 2부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이호민 담임목사</b> 
<b>가디나선교교회</b>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김정훈 담임목사</b> 
<b>대홍장로교회</b>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b>서보천 담임목사</b> 
<b>둘로스교회</b>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만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b>김경환 담임목사</b> 
<b>은혜로교회</b>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b>이중용 담임목사</b> 
<b>코너스톤교회</b>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9청년예배 오후 2:00	오전 8:00 오전 9:45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매일) 오후 6:00	<b>김유준 담임목사</b> 
<b>토렌스 조은교회</b>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렘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b>고창현 담임목사</b> 
<b>토렌스제일장로교회</b>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b>방상용 담임목사</b> 
<b>세리토스선교교회</b>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b>이우호 담임목사</b> 
<b>CRPC 모레노밸리연합교회/LA구국재단</b>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한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예배예배 오전 11:30 평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b>구봉주 담임목사</b> 
<b>감사한인교회</b>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b>백정우 담임목사</b> 
<b>남가주동신교회</b>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b>주혁로 담임목사</b> 
<b>주님의빛교회</b>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교목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b>안창훈 담임목사</b> 
<b>늘푸른선교교회</b>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b>지영환 담임목사</b> 
<b>다우니제일교회</b>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아침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b>림혁춘 담임목사</b> 
<b>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b>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부인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b>김한요 담임목사</b> 
<b>베델교회</b>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여부 오후 1:00 KM대청년부 오후 2:30	<b>박신웅 담임목사</b> 
<b>얼바인온누리교회</b>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남성수 담임목사</b> 
<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1:15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b>한기홍 담임목사</b> 
<b>은혜한인교회</b> 행복한 교회 삼근리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b>박훈 담임목사</b> 
<b>함께 걷는교회</b>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otmail.net	

주일예배 오후 1:00	<b>최순환 담임목사</b> 
<b>New Church</b>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강태광의 기독교 인문학 강의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만주 고토의 조선인과 토착인을 향한 선교사 파송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1907년 9월에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독노회가 결성되고 최초의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인중의 한 명인 이기풍 목사가 1908년에 제주도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 조선 장로교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지속적인 선교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교회 연령으로 보면 아직 성년이 못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열정을 다한 선교하는 조선교회로 거듭난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이를 더욱 확산하며 지속하여 국경을 넘어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다. 그 땅은 지금의 동북삼성 지역으로 고대에는 고구려와 발해로서 조상의 땅이기도 하였다.

그 중에 조선 반도와 가장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 있는 조선 동포를 향한 전도 사역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이 지역은 조선에 교회가 생기기 전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두만강 건너편의 북간도(도문, 용정 및 연변)와 압록강 건너의 서간도인 지금의 단둥과 통화, 집안 지역에 많은 조선인들이 오래 전부터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1860년대에 함경도 지역을 비롯하여 조선 전역의 심한 흉년을 겪게 되자, 강을 건너 무주공산 같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던 곳이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땅은 청나라의 땅이기도 하였고 조선인들의 땅이기도 하였다.

1876년에는 지금의 심양의 '동관문교회'에서 조선 청년서상문과 김청송을 비롯한 5명이 존 로스 선교사의 제자가 되어 조선어 성경을 번역하였고 1883년에 김청송은 고향인 압록강변의 집안현으로 그곳은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이기도하여 조선어 성경을 데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 먼 길을 걸어서 심양의 존 로스선교사를 찾아와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마침내 그 후에 정식 교회가 세워졌다. 지금도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한 집안현 이양자 마을 계곡의 바위에 <1898년>이라고 세워진 기념비가 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압록강 건너의 서간도 지역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맡게 되었고, 두만강 건너편의 북간도는 함경도 교회와 캐나다 선교회가 맡아서 선교 활동을 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도 세웠다.

이 만주 지역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1년 만주 지역의 자생적 기독교인들이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하여 평안북도 여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조선인 사역자들을 파송하였다. 1902년 가을, 그곳을 방문한 휘트모어(Whittemore, 1870~1952)선교사가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본 후에는 선교사들과 조선인 사역자들이 자주 방문 사역을 하였다.

1910년 제4회 독노회 때 북평안대리회에서 서간도 선교사를 청원했고 함경도대리회에서 김영재를 북간도 선교사로 청원하였으며, 평북대리회에서 김진근을 서간도에 파송 결정했다. 1915년에는 조선인 사역자의 지도 아래 45개 교회와 2천7백50명의 기독교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되었다. 이들 중에는 9개 교회는 성도의 수가 100여명이 있었고, 큰 교회는 2백 명 이상이 모이기도 하였다.

1920년에는 교인이 약 3천 3백여 명과 주일학교가 66개와 성경학교가 1개소가 있었으며 51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2개소가 세워졌고, 1925년에는 '동만주노회'가 결성되었다. 북만주 지역에서는 10년 후인 1931년에는 27개의 교회와 1,776명의 교인과 4명의 목사와 16명의 장로와 33개의 주일학교와 51개의 초등학교가 세워졌고 '북만주노회'도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만주 지역에 3개의 노회가 조직되는 놀라운 교회 성장이 있었다.

인문학적 견지에서 말하면 기독교는 인문학 운동입니다. 인문학에 성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인문학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연의 종교가 아니라 경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불교나 힌두교)가 아니라 경전의 종교(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등)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책을 통해 전도하고 책을 좋아하는(Book-ish) 인문학 운동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종합 인문학이었던 수사학의 대가들이 기독교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대부분의 교부(Father of Church) 신학자들은 수사학자들이었습니다. 2세기 경 반교회적이고 적대적인 이방인들과 이단들에 대해 교회의 방어 및 옹호, 그리고 호교적(護敎的)인 변론을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단과 싸우면서 기독교 교리를 세웠습니다.

교부들은 기독교 교리를 세우면서 당시 철학과 수사학의 논리를 활용했습니다. 오리겐, 터툴리안, 암브로시우스, 성 어거스틴, 요한 크리소스톰, 제롬, 그레고리오 대교황,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라탄티우스 등등의 교부 신학자들이 기독교 인문학자들입니다. 다음에 밝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수사학은 인문학입니다. 사실 로마 인문학은 업그레이드(Upgrade)된 헬라의 수사학입니다.

이런 교부 신학자들 이전에 있었던 속사도 교부들(Apostolic Fathers)도 상당한 수준의 인문학 소양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귀한 저작물을 남겼습니다. 안디옥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나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 등등의 교부들은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위해(순교를 당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교회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도 흔들림 없이 신앙적 교훈을 전한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편지를 써서 전한 것도 주목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예수님 행적을 기록하여 복음서를 남긴 사도들부터 시작된 기독교 인문학 운동은 그들의 제자들인 속사도 교부들도 기록을 남겨 기독교적인 인문학 운동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수의 기독교 부흥 운동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인문

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은 평신도가 성경을 직접 읽고 깨달아 가는 인문학 운동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르네상스는 독서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인문학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 개혁은 기독교적인 르네상스입니다.

16세기 청교도 운동은 책을 읽고 책을 팔고 책을 쓰는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영국 스털링 대학교 키블(N. H. Keeble)교수는 '청교도 운동은 본능적으로 책을 읽는 운동이다(Puritanism was an intrinsically bookish movement)'라고 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매서인 혹은 권서인(Book Peddler)들이 책을 팔았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책을 통해 부흥을 누린 기독교 인문학 운동이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에도 책 읽기 운동이 등장했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의 전통을 가졌던 영국 선교사들과 당시 한국 교회는 서경조, 유석현, 안교철 등 유능한 보부상들을 권서인(Book Peddler)으로 임명해 성경을 보급하게 했습니다. 안양대학교 이은선 교수는 한국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는 권서인들을 통해 보급된 성경을 읽으며 믿음을 가진 민초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권서인들의 역할은 한편의 책보다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팔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경을 팔았습니다. 등에 맞기도 하고, 일본 순사에게 독살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성경책을 팔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책 보급을 통해 건강한 기초를 쌓았습니다.

여하간 기독교는 인문학 운동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기독교 인문학을 현대 인문학 열풍에

서 배우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어떤 종교보다, 어떤 분야보다 기독교와 성경이 인문학과 가깝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인문학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변곡점마다 기독교 인문학의 역할이 돋보입니다.

다행스럽게 기독교가 인문학에 관심을 보이고 다수의 기독교 인문학 관련 서적이 출간되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인문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폭넓은 독서를 자랑하는 작가들의 값진 지식과 정보가 귀합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인문학 지식의 나열이나 인문학적 단상들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거시적으로 기독교 인문학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문학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인문학(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성경이해도 제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문학 양식대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단편적이 아닌 시편은 시로, 역사서는 역사책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반대로 성경을 통해 인문학 소양을 쌓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할머니들이 삶의 통찰력과 해안을 가진 지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통해 풍성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셋째, 신학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문학자들에 의해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사에 교회를 지키고 교리를 세운 교부들이 인문학이었던 수사학(Rhetoric)을 활용해 교리를 세웠습니다.

넷째, 인문학적 안목으로 삶의 지평을 넓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 외에는 용납할 수 없는 독선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문학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인문학적 이해가 있어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선교 대상이 인문학적 환경에 있습니다. 선교 대상들과 인문학을 통로로 소통해야 합니다. 인문학은 선교를 위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보트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보트" 검색  
유튜브: "탈보트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총회원
- 기독교문화(역사), 목회학(역사(M.Div), 상담학(박사, 석사),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용 박사 T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연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정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66-72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충무기도 오후 8:30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2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른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일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참가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균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오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주일예배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충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인제문(요정시)  
주요예배 목요일 오후 8: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피터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토요일충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요한 담임목사**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주일예배 기도회(주일) 오전 11:00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강준민 칼럼

### 잠시 멈추어 영혼을 돌보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글 쓰는 것이 힘들지만 세계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언제나 잠시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잠시 멈추어 제 영혼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분주함과 소란함과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선물로 주어진 이후, 사람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주 스마트폰을 만지고 검색하지만 공허감은 더욱 커져 갑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영혼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거짓 정보와 가짜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수많은 광고와 접촉될수록 마음은 더욱 산만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영혼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우리 존재의 뿌리입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마음의 세계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견실히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의 건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서서히 죽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는 견실하게 성장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알고 살피는 하나님의 등불 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잠 20:27).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잠 19:8).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돌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키웁니다.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영혼

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어 돌보아야 합니다. 영혼을 잘 돌볼 때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해집니다.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요 6:35).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힘을 얻습니다. 무엇이든 돌보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육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건강한 영혼으로 성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침묵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경청하십니다. 침묵할 때 영혼의 귀가 열립니다. 영혼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소생합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사 55:2하-3상).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한 침묵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을 잘 돌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영혼을 잘 돌볼 때 우리 영혼은 고요해집니다. 영혼은 잠잠하고 고요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사 30:15).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시 62:5). 영혼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영혼은 늘 고요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영혼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날마다 잠시 멈추어 영혼을 돌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볼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 돌보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영혼을 잘 돌보는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재호 칼럼

### 우상숭배의 유혹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 출애굽기 20장 3절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다. 십계명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쉐레트 하드바리임”으로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신명기 4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에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에 첫 계명은 우리에게 두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다른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에서부터 인

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가짜신들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우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나 사람, 영혼 혹은 기타 형상 등을 말한다. 이처럼 구약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삶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도 자신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슬픔의 정이가 몽땅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처럼 오늘 포스터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많은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와 권력, 자유와 과학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도 하나님 대신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주된 이유 중 하

나가 바로 정욕과 쾌락에서 찾는 기쁨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쾌락주의 혹은 향락주의라고 정의한다.

인간이 느끼는 허기(虛飢)란, 몹시 굶어 배고픔을 느끼거나 허전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굶어서 배가 고파진 허기는 음식을 먹으면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거나 붙들고 서야 그 허기진 상태가 해결될 것처럼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허기를 느끼게 하는 것은 욕망과 바램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리적 허기증상은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발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불안과 공포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구약성경 사사기에서도 등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리더가 없게 되자 영적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렇게 영적 허기가 찾아오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데로 자신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든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으로 그들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만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감은 사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스스로의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하기 위한 노력으로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선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롬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됨을 기억하라. 만약 즐거움과 만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임을 기억하고 오늘날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갈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이리 추운데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채소 오뎀떡  
슬팍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 성경암송의 은혜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 그 도시에서 조금은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드문 왼손잡이 공격수로 대학 배구선수를 하셨던 분인데, 당시 교포사회에서는 모임 때마다 잘못을 지적하는 안고함으로 다툼과 분란의 원인이 되고, 주사까지 있어서 주변을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위해 처음 가게를 방문했을 때도 고집스럽게 외면하며, 나가는 제 등 뒤로 굽은 소금을 뿌릴 정

도로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모시고 사는 그 분의 노모는 기도의 어머니로 저를 만나자 제 손을 꼭 잡고 아들의 구원을 부탁한다며 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습니다.

그 후 여러 번의 만남과 노모의 장례식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름 은혜를 받는데도 여전히 한 번씩 튀어나오는 옛사람의 기질로 인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무엇보다 자신이 힘들어하다가 제게 상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때 성령님이 주셨던 기도의 응답은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순종하여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한 말씀들 중 좋아하는 성경들을 암송하더니 성경을 권 별로 암송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복”을 위해 노트에 암송한 성경구절들을 썼는데, 매일 아침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

니다. 암송한 말씀들이 많아지면서 거의 3시간을 암송하고 가게를 나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성품과 일상의 삶이 다 바뀐 것을 주변사람들까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과 대조적으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큰소리치던 권사님이 국경을 넘어 브라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을 잡아서 몇몇 분들과 함께 국경을 넘는 심방을 갔다가 마침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것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다시 만난 권사님은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혼수상태에서도 시편 23편을 중얼거리며 암송하셨던 노장로님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겉은 치장하여 속일 수 있지만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부지중에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최

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한다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줄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내와 함께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충성을 다했던 찰스 헤이워드는 나이 73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아름답게 “생애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성경구절을 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87세로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찰리의 목록’이라고 하는 총239절을 암송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남겨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복과 능력의 원인이 되는 성경을 암송하는 은혜가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 팀 켈러, 그리고 마크 헤이즈의 “넉넉히 이기느니라”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팀 켈러(Tim Keller, 1950-2023)가 쓴 “일과 영성”이란 책을 보면 성공의 헛바퀴를 향해 무작정 달리지만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복음 안에서 일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짧은 생을 지내며 고되게 일해서 대단한 결실을 얻었다손 치더라도 시점이 조금 빠르고 늦을 뿐 언젠가는 퇴색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 평안의 근원.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인류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우리의 일들은 그것이 크건 작건간에 언젠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그 가운데 복음을 통한 평안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에 기대어 자신을 입증하고 정체성을 지키려는 압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출세의 수단으로 보는 대신 못사람들을 섬기는데 쓸 수도 있다. 예전보다 더 큰 위협을 감수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야기 합니다. “영원한 궁전에서 한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에 둘러싸여 사셨지만, 그 모두를 버려둔 채 자원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바치게 한 그 사랑을 먼저 알고 그것에 반응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팀 목사님의 모든 글에 종결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가 몇 주 전 소천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복음 신앙을 거리로 그리고 학계로 가져가서 역설을 펼쳤던 이 시대 진정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진정 예수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목회자였다는 사실이 그의 책들 속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가 쓴 책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예수님만으로 충

만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의 말이 그의 소천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가 소천 되기 하루 전 날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I can't wait see Jesus, send me home” 그리고 그가 소천되며 최후에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eaving, not in the slightest 내가 떠남에 있어 미련은 없다, 아주 조금도 ...”

미국의 교회음악가 마크 헤이즈(Mark Hayes, 1953 - )의 성가곡 중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곡이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 모토를 담은 듯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곡은 사도바울의 말씀 중 두 부분 롬8:37-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그리고 엠 6: 10-12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를 텍스트로 삼아 음악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마크 헤이즈 작곡가가 아주 효과적 표현하였습니다. 역동성, 리드미컬함, 추진력(dynamic, rhythmic and driving) 을 여실히 드러내며 텍스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 엷박자의 리듬과 다이내믹의 극적인 사용을 통해 다양한 톤 컬러를 드러내게 하여 끊임 없이 감정을 고양시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직면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해하려는 요소들을 저항하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로 가슴에 담게 하는 찬양입니다.

지난 이주 전 주일 교회 찬양대에서 이 곡을 준비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필자는 팀 켈러 목사님을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울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바울의 이 말들을 팀 목사님은 가슴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혼돈의 극치를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 과감하게 외쳤던 이 시대 바울이었습니다.

## 성경쉽게읽기 특강

**성경 일천번 이상** 통독하신 강사가 아래와 같이 '성경쉽게읽기'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7월 6일, 13일, 20일, 27일 매주(목) 오후 7시(4주간)
- **장 소**: Kairos University Campus (얼바인 분교 2층)  
2681 Walnut Ave, Tustin, CA 92780
- **등록인원**: 40명 선착순(인원이 차면 다음 기회에)
- **등록비**: \$50 (교재 및 Fellowship)
- **등록방법**: 949-304-8912 이메일: bible100plus@gmail.com
- **강 사**: 데이비드 리 성경읽기선교사
- **주 최**: 성경쉽게읽기선교회 (본 선교회는 성경읽기에 관하여만 가르칩니다)



**스포켄 반석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

\* 위싱턴주 스포켄에 위치한 반석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남침례교단 회원이거나 가입가능한 자, 미국 내 합법 체류자  
\*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받을 인품과 성실함이 있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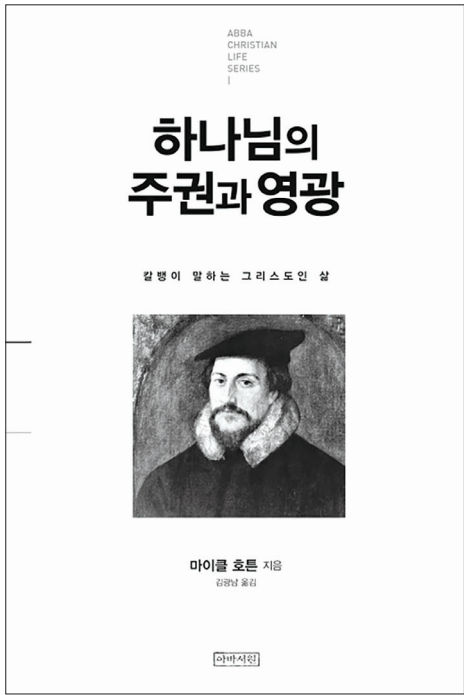
▪ **제출서류**: 1. 이력서 (목사님/사모님)  
2. 자기소개서 (가족소개 및 가족사진)  
3. 설교동영상 또는 음성파일

▪ **지원방법**: 이메일로만 접수받습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 Jayyon4@gmail.com

**반석침례교회**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칼뱅에게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

# 그리스도인 삶에 필요한, 영적 거장들의 삶과 가르침



###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마이클 호튼 | 김광남 역  
아바서원 | 424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초석이다”

뛰어난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칼뱅의 경건 사상과 신학

크로스웨이에서 스티븐 니콜스와 저스틴 테일러가 공동 편집한 시리즈가 있다. 뉴턴, 스펀전, C. S. 루이스,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어거스틴, 루터, 분회파, 바빙크, 워필드, 에슬리, 로이드존스, 존 스토틀, J. I. 패커, 프란시스 쉐퍼 등의 삶과 가르침을 다루었는데, 시리즈 서문에 따르면 독자로 하여금 “지난 20세기에 걸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모델, 다른 접근법과 강조점을 통해 배우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아쉬운 과거 영적 거장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풍부하게 얻어내는 귀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아바서원에서는 분회파, 쉐퍼, 웨슬리, 칼뱅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번역하여 ‘아바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로 출간했다(ABBA

CHRISTIAN LIFE SERIES).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칼뱅의 삶과 가르침을 다룬 마이클 호튼의 책이 2023년 제목을 개정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나왔다.

저자인 마이클 호튼은 개혁주의 신학자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증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가 쓴 많은 책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종교개혁의 전통적 쟁점을 탐구하는 미디어 그룹, ‘화이트 호스 인’의 공동 대표인 호튼이 종교개혁 핵심 인물인 칼뱅을 다룬 것은 참으로 적합하다.

칼뱅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짧게 요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공동묘지에 아무런 허식 없이 눈에 띄지 않게 묻어달라고 말한 칼뱅은 누구보다 추앙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로 그가 종교개혁과 그 이후 개혁주의 교회에 미친 영향은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호튼은 400쪽이 넘는 이 책을 통해 칼뱅의 가르침을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했다. 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② 하나님 안에 사는 삶 ③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삶 ④ 세상에 사는 삶.

결론적으로 호튼은 칼뱅의 교리를 탁월하게 정리했다. 이를 통해 칼뱅의 신문, 기독교, 구원론, 교회론, 윤리학 등을 다루었는데, 칼뱅이 기록한 1차 자료와 칼뱅을 연구한 2차 자료 등을 풍성히 활용하면서, 칼뱅의 가르침을 정확히 다루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다. 어느 정도 저자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확실히 분회파를 다룬 스티븐 니콜스보다는 교리적 분석이 더 구체적이고 설명의 심도가 더 깊다. 하지만 지루하거나 장황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고, 체계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짧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칼뱅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논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책을 넘기는 동안 당신은 마이클 호튼이 당신을 칼뱅이라는 관광버스에 태워 기독교 신학 전체를 둘러보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말에 공감한다. 독자는 호튼이 보여주는 풍성한 칼뱅의 신학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단단히 벨트를 매라.

호튼이 독자를 끌고 가는 목적지는 분명하다. 칼뱅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 직업, 영광을 기대하는 삶, 공적 예배, 기도, 율법과 자유의 균형 잡기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놀라운 것은 굉장히 오래 전에 칼뱅이 생각한 사람들의 치우친 생각에 오늘날 그리



존 칼빈은 자신의 무덤을 남기지 말라고 유언해 모지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순례객들을 위해 제네바에 만들어진 기념묘지. ©위키

스도인들도 많이 빠진다는 것이다. 또 칼뱅이 성경을 통해 균형을 잡으려 한 부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준다는 점이다.

가령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삶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직업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볼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무가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인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만드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칼뱅이 크게 기여한 직업 소명의 가르침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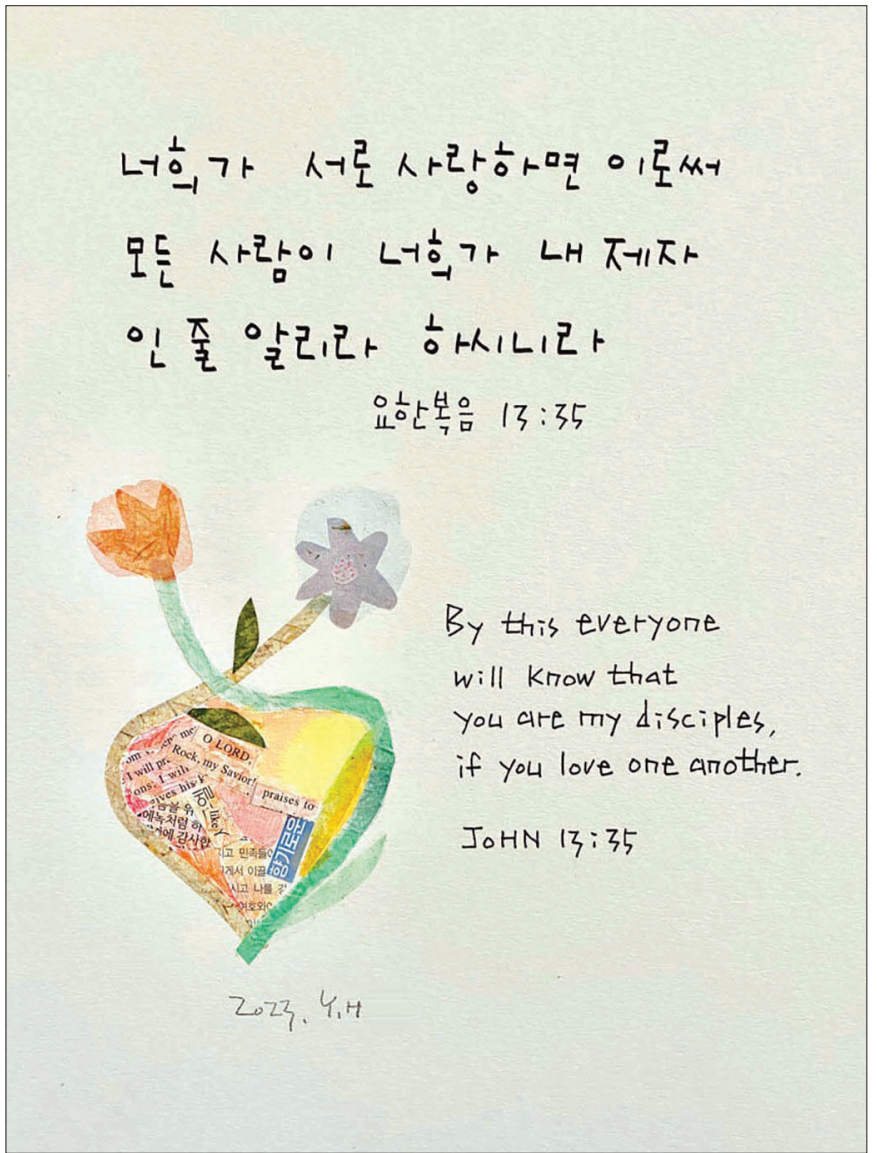
아텐의 아레오바고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던 이들(행 17:21)”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새로운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오래된 것, 정통적인 것, 오랜 세월에도 변하지 않고 견고한 삶의 기준이 된 가르침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가르쳤던 것처럼, 호튼은 칼뱅의 오래된 가르침을 새롭게 독자에게 제시한다. 이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제시하신 ‘옛길’이며,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지혜를 지난 20세기에 걸쳐 먼저 걸었던 신실한 순례자들을 통해 배운다.

독자가 호튼의 안내를 받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바른 길로 성실하게 걷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풍경화 발전 앞당긴 트리거, 클레즈 피셔

#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연의 책' ... 종교개혁 그 이후

왼쪽 상단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햇살, 은총의 빛 피셔의 판화, 종교개혁 미술가들 고민 흔적 담아 예술, 기독교적 삶의 목표 온전히 이를 주요 매체 인간 타락에도 세상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타내

네덜란드 회화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은 클레즈 피셔(Claes Jansz Visscher, 1587-1652)의 하를렘 주위를 묘사한 12점으로 구성된 에칭 풍경화가 발표되면서부터이다.

《즐거운 장소》(Plaisante plaetsen, 1612)는 이 판화집의 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를렘의 문장(紋章) 좌우편에는 책을 들고 있는 여성과 낫을 들고 있는 남성이 등장한다. 책을 펴고 있는 여성은 하를렘의 경관을 감상하고 있는데 한 손에는 책책을 들고 있으며, 그녀의 옷에는 '근면'(diligentia)이라는 라틴어가 씌어져 있다. 오른쪽의 남성은 한 손으로 낫과 모래시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낫가지를 쥐고 있다.

이 두 인물은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히 하를렘 여행을 권고하면서도 '근면'과 '정해진 시간'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아래 글귀에는 자신을 소개한 후 "나의 작품은 '창조의 책'(자연을 가리킴)에서 읽은 것을 묘사한 것"이라며 "여기 묘사된 하를렘 근처의 쾌적한 장소로 여행할 시간이 없는 연인들은 이 판화를 구입하면 집에서 이러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찌 보면 전면의 인물과 후경의 하를렘 풍경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여인이 함축하는 '근면'과 남성의 '정해진 시간'이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인생을 지혜롭게 보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평화로운 하를렘 풍경은 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화면 오른쪽 들판을 걷는 사람을 보면 "오, 당신은 이 땅의 방랑자요구나" 하는 시구를 연상시키며, 판 만다의 <인간 삶의 알레고리>에 등장하는 순례자 이미지와 오버랩되기도 한다.

이 인물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데,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프리드버그(David Freedberg)는 네덜란드 풍경화의 감상자들이 자연의 묘사를 통해 '즐거운 놀이터'로 삼을 수 있게 했다고 풀이하며 이 인물 역시 하를렘 외곽을 소요하는 산책자라고 보았는가 하면, 브루인(J. Bruyn)은 이 그림을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의 '성경적' 해석의 측면에서 이 인물을 죄악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알레고리라고 주장하였다.

부르인의 말처럼 이 알레고리는 네덜란드 풍경화에서 종종 멀리 보이는 교회나 성으로 떠나는 방랑자, 또는 예배당을 찾는 사람 등

으로 나타난다.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화면의 전체 흐름은 일관적이다.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은 왼쪽 상단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햇살, 즉 은총의 빛이다. 이 은총이 두 인물을 비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하를렘 전역을 감싸고 있다.

그런데 화면 중앙의 나무는 잎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것은 어쩌면 죽어가는 나무일 수도 있다. 태양의 빛은 불모의 나무에도 생명을 선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하를렘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지만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 태양에는 히브리어로 'JHWH'(יהוה)가 새겨져 있으며, 미술사학자 부데바인 바커(Boudewijn Bakker)는 이를 하를렘 도시 곳곳에 '은총의 빛을 내리시는 창조주', '구원의 태양'으로 해석한 바 있다.

지도 제작자였던 피셔는 하를렘과 그 주위를 세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그 점은 인근 해변을 묘출한 '즐거운 장소' 시리즈 중 두 번째 판화 <잔트포르트 근처의 등대>에서 엿볼 수 있다.

이 판화는 석조건물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특이한 구도로 되어 있다. 석조건물 안에 비문 형태로 목차를 각인하고, 그 너머로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 창문턱에는 잉크와 책, 펜과 니들, 교회가 새겨진 동판 등이 나열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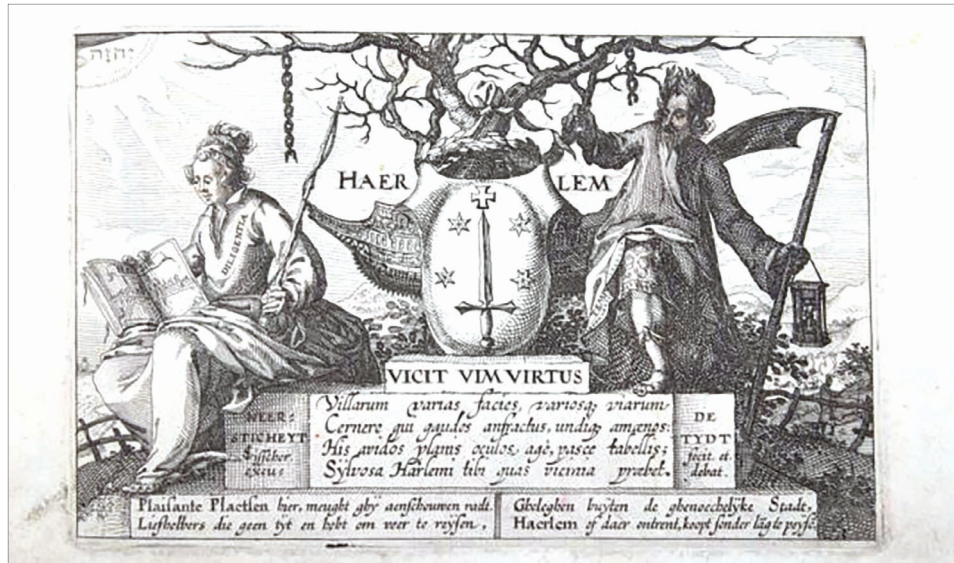
하를렘 인근 잔트포르트(Zantvoort) 해변을 묘출한 후경의 왼쪽은 등대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면서, 광활한 하늘과 드넓은 해변이 펼쳐진다. 이 드넓은 해변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풍부한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바커가 표지화에서 말한 것처럼 이 그림 역시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가 만드신 것들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롬 1:18-21).

그림은 지상의 아름다움의 목록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피조물들은 '거룩한 제작자'와 '거룩한 보존자'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훈을 함축하고 있다.

피셔의 판화를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관광 홍보물 쯤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겠지만, 종교개혁 이후 미술가들이 안고 있었던 고민의 흔적을 담고 있다.

성상 파괴의 목소리가 고조될 무렵, 경건주의자들은 '안목의 정욕'을 영적인 것으로



《즐거운 장소》의 표지(클레즈 피셔, 1612, 릭스뮤지엄 소장).



《즐거운 장소》의 목차(클레즈 피셔, 1612, 릭스뮤지엄 소장).

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교회 부패에 이어 따라온 교회 미술의 타락은 개혁가들을 경악시켰다.

이에 따라 시각 예술 종사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개신교 미술가들은 돌과구를 마련하기에 부심하였다.

칼빈주의자였던 클레즈 피셔는 교회의 형제들에게 회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변론하고자 했다. 피셔에게 예술은 오히려 인생에서 기독교적 삶의 목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요한 매체였다.

그는 예술이 종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피조 세계 속에서 소정의 목표를 추구해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연 테마가 부흥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 네덜란드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중간 계층의 그림 수요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많은 개신교 화가들은 회화예술의 가능성, 즉 시각예술을 피조된 세계와 믿음을 연결지어 발전시켰다. 그들은 특히 자연 풍경을 역사적 인물의 단순한 배경으로 이해하기보다 거기에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창조질서로 빛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피셔의 경우처럼 인간의 타락이 자행되는 곳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셔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피셔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이 범람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보살피시며 유지하신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이처럼 풍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피셔가 믿음의 눈으로 자연세계를 보는 데서 얻어낸 산물일 뿐 아니라 이같은 시각은 훗날 다른 미술가들이 공유하였던 지점이었다.

이것이 바로 《즐거운 장소》가 후일 풍경화 장르의 혁신적 발전을 앞당기는 트리거가 된 배경일 것이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 1. 구독 서비스

엔지니어 없이 프로의 소리를!

- ❖ 1년에 4회 정기방문
- ❖ 연간 2회 무료 방문
- ❖ 음향기기 이력관리
- ❖ 기술상담 및 교육

## 2. 교회 방문

프로 엔지니어의 맞춤형 솔루션!

- ❖ 스피커 분석 및 세팅
- ❖ 장비 업그레이드 상담
- ❖ 유튜브 기술 상담
- ❖ 음향, 영상, 조명 설치

## 3. Solo시스템

태블릿 하나로 예배준비 끝!

- ❖ 모든 교회에 설치가능
- ❖ 와이파이 기반 서비스
- ❖ 강단에서 음향, 영상, 조명을 컨트롤 합니다

## 4. 상담 및 교육

비싼 미디어장비 제대로 활용하자!

- ❖ 전문가가 직접 방문
- ❖ 유지, 관리비용절감
- ❖ 고장 발생시 신속처리
- ❖ 미디어 사용법 교육

☎ 323-643-3033

✉ dmediacontents@gmail.com

🏠 dreammediac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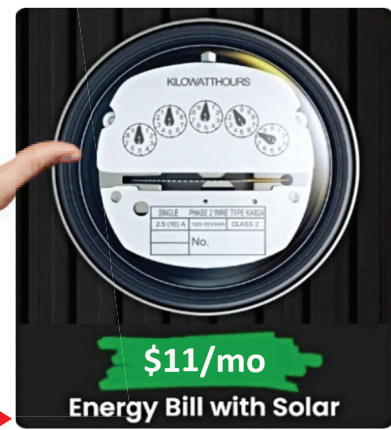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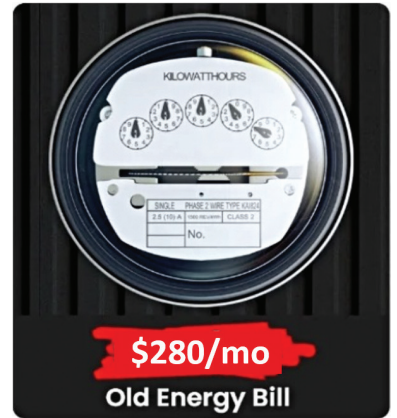


# 태양광, 솔라!!

##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 2023년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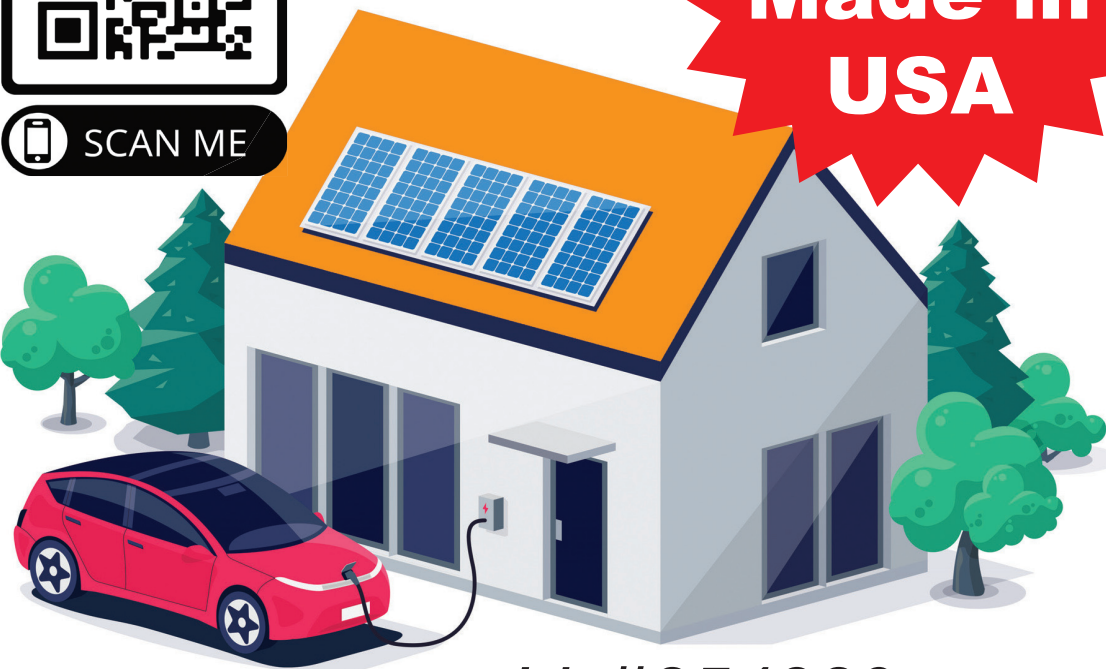
### 전기세가 11달러?!



### 100% Made in USA



SCAN ME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 \*소개 해주신 분께 시공 완료 후 500 불을 드립니다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2~3달 안에 설치** 가능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